

<1면에 이어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우리 나라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미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은 적극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이 최단 시일 내에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참여정부 핵심공약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창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식인프라인 특허정보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건의 국내·외 특허기술 정보를 활용·보급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방향 제시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WIPO, WTO, APE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 중업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여성의 발명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센터가 해당지역의 특허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지역발명활동 지원의 구심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명잠재력 확충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2004년을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 해로 가꾸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 특허가족이 솔선수범하여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봅시다.

21C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도전임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축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특허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허가족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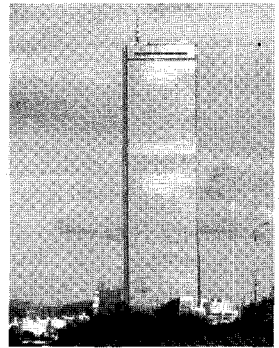
특허청장 하 동만

### 초고속 신개념 엘리베이터 특허출원 늘고 있다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꿈이 초고속 신개념 엘리베이터의 개발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개관되어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된 대만 타이베이 '타이페이 101(지상 101층, 높이 5백8m)'은 1층에서 89층까지 39초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중국 상하이 '바이오닉(Bionic Tower / 지상 3백층, 높이 1천2백28m)'에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3백68대나 설치된다. 우리나라도 서울 상암동에 밀레니엄 타워(지상 1백30층, 5백30m)가 계획 중에 있어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초고층,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구동기술과 제어기술의 발달, 기계실 없는(Machine Roomless) 엘리베이터, 로프리스(Ropeless) 엘리베이터와 같은 신개념 엘리베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로프리스(Ropeless) 엘리베이터는 로프를 없애고 전자기적 힘으로 구동하는 엘리베이터로서, 로프로 인한 제약이 없어 운행거리의 제한이 없고 주기적으로 로프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며 수직방향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의 운행도 가능한 획기적인 개념의 엘리베이터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63빌딩. 앞으로 서울 상암동에 밀레니엄 타워가 세워질 계획이어서 곧 우리나라에도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다. 이러한 초고속 신개념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기술은 아직 초보단계이나 90년대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관련 특허출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초고속 엘리베이터 관련 국내 특허출원의 경우 92년 10건, 93년 11건에 불과하였으나, 97년 34건, 99년 55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개념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또한 91년, 92년 각각 1건에서 98년 6건, 2000년 6건 등으로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빨리, 더 높이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계속되는 한 초고속, 신개념 엘리베이터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서비스, 종합적인 지방 체제 구축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 지식재산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시·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지식재산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특허정보제공 외에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설명회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기능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지방자치단체, 대학과의 유기적인 특

허협력 체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이러한 내용으로 지자체공무원, 지방지식재산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한 주 뒤인 12월 3일에는 지방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 책임자와 특허청장이 함께하는 오찬간담회를 열기도 하였다.

특허청의 이러한 근접 특허종합 서비스체제의 구축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대학이 기술개발 시작단계에서부터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키기 위해 '팔 걸었다'

중소기업들이 특허 의장등록 등 지적재산권 수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력량계 생산업체인 옴니시스템은 '입출력 분리형 전자식 전력량계'의 특허를 침해한 H사를 특허심판원에 제소해 최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생산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또 다른 3개의 기업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자사의 수배전반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D사를 상대로 한 법적소송에서 이겼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8%를 로열티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런나이코리아도 최근 I사를 상대로 1년

동안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런나이코리아는 이 업체가 가스보일러의 수류스위치와 가스버너 특허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구업체들은 디자인 도용 방지를 위한 의장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퍼시스와 이 회사의 관계사인 일룸은 자사들이 디자인한 퍼즐플러스 시리즈의 수직 수납장 등에 대한 의장권을 경쟁업체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의장권을 침해혐의가 있는 B, K, D사 등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또 리바트는 손잡이를 없앤 핸들리스 타입의 주방가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E사를 상대로 주방가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E사도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지면안내 ■

- 1 한국어성발명협회 '정부인사 초청 간담회 및 송년의 밤' 개최
- 3 2003 발명유관단체 워크숍 개최
- 5 세에 세 결심, 담배끊기
- 10 최초로 발명교실을 연 곳, 동작발명교실
- 14 탐방 Plaza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연구센터
- 4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 9 인물 FOCUS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 13 대표적인 여성 발명품 소개